

혁신정책

#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KISTEP 글로벌R&D협력센터 강진원 · 김혜나



#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2024.5.14, 국제협력정책센터 강진원, 김혜나)

## 1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배경

- '22년, '23년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안보·경제 관점의 미·일 협력 관계 강화 추세
  - 미국이 일본의 방위비 증액 및 억지력 강화를 지지하고, 일본이 인도 태평양 경제협력 프레임워크 (IPEF) 참여를 표명하면서, 안보·경제면에서 미·일 간 결속이 한층 강화('22.5)<sup>1)</sup>
    - ※ 양국 정상은 한·미·일의 긴밀한 협력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안전보장 문제를 포함하는 협력 범위가 확장될 가능성을 포함
    - ※ 일본 내에서는 경제안보보장을 이유로 중국시장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도 제기(2021년 말 기준 양국의 무역총액은 약 3,500억 달러로서, 중국은 15년 연속 일본의 최대 무역 상대국)
  - 우주를 포함한 미·일 간 안보범위의 확장, 영역 횡단 능력 강화, 일본의 반격 능력의 효과적 운용을 위한 양국 간 협력 심화 등 논의('23.1)<sup>2)</sup>
    - ※ 미국이 자위대의 능력, 역할 확대를 포함한 '미일동맹의 현대화'를 대일외교의 우선순위에 두고 있어 역내 안보에서 일본의 역할 확대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
    - ※ 2023년 5월 18일 G7 계기로 개최된 미·일 정상회담에서는 중국 견제를 위한 반도체, 인공위성 등 최첨단 기술분야 협력을 강화키로 함
- 미·중 간 기술패권 등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양국의 국내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획기적 양국 간 파트너십 관계 마련<sup>3)</sup>
  - 무역분쟁으로 시작된 미·중 간 갈등이 기술제재, 첨단산업생태계 제재 등 전반적인 영역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확대 및 미국 우선주의에서 통합억제 방식으로 변화
    - ※ 미 국방부는 국방전략서(NDS)에서 통합억제는 기존 군사적 수단의 확장억제에 미 정부의 타부처/기관 및 동맹국/협력국과 경제적 제재, 수출통제, 외교 조처 등 외교·정보·경제적 수단을 추가('22.10)
  - 미국의 11월 대선과 일본의 9월 선거로 인한 불확실성을 미리 해소하고 인태지역의 안보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미·일 현대화 작업을 통해 북한과 중국 등 역내 위협에 대비
    - ※ 기시다 총리와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미·일 정상회담을 중요한 외교적 성과로 귀결시켜 자국 내 정치에 활용해야 하는 상황으로 바이든과 트럼프는 오차범위 안에서 초접전 중이며, 기시다 총리 또한 낮은 지지율(23%, NHK, 4월 8일) 만회 필요<sup>4)</sup>

1) 안보·경제로 강화되는 미일관계 -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2 참조

2)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3 참조

3) The Biden-Kishida summit: An elevated partnership faces potential disruption, Brookings, 2024 참조

4)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4 참조

## 2 미·일 정상회담 주요 내용<sup>5)</sup>

□ 협력의 핵심은 파트너\*로서 법치주의를 바탕으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유지하고 강화하며, 21세기의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는 것

\* 미국이 일본을 보호하는 동맹의 시대를 끝내고 글로벌 질서를 함께 수호하는 행동하는 동맹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것

※ 국방·안보협력 강화, 우주의 새로운 영역 도달, 기술혁신, 경제안보 강화, 기후행동 가속화, 글로벌 외교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인적유대 강화 등에 대한 전략적 이니셔티브 제시

### ○ 국방·안보 협력 강화

- 센카쿠 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힘과 협박을 통한 일방적인 현상변경 시도를 반대하고, 미·일 안보조약 제5조가 오키나와의 센카쿠 열도에 적용됨을 재확인

※ 일본의 센카쿠 제도 통치를 훼손하려는 행위를 포함하여 동중국해에서 무력이나 강압을 통해 일방적으로 현 상태를 바꾸려는 중국의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반대 강조

- 자위대와 주일 미군의 원활한 연계를 위한 지휘 및 통제체제 개선, 미사일 등 무기 공동개발·생산을 논의할 협의체(DICAS) 구성, 주일미군의 대형 함선 일본 보수 허용, 오커스 ‘필러 2’에 일본이 파트너로 참여하는 방안 검토 합의

※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사이버안보, 극초음속 미사일 등 8개 분야에서 첨단 군사 역량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오커스 ‘필러 2’ 참여에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열려있다는 입장<sup>6)</sup>

- 미·일·호주 3국 공동 미사일 방어 네트워크 협력 추진과 미·일·영 3국 간 정례 군사훈련을 2025년부터 시작 발표 및 미·일 간 2+2 회의(국방+외교)를 통해 일본에 대한 미국 핵전력 지원을 향후 논의기로 함

※ 미·중 간 유사시를 대비한 일본의 잠재적 병참기지화가 가능하며, 일본은 2차대전 전범국가로서 미국에 의해 주어진 ‘평화헌법’ 체제 하에서의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 원칙에서 벗어날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

※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북일정상회담을 공개 지지하고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하여 한·미·일 3국이 긴밀히 조율하기로 의견 교환

### ○ 우주의 새로운 영역에 도달

※ 미국이 오커스 회원국에 대한 ITAR 예외를 승인하면 일본이 ‘오커스 필러 2 첨단 능력 프로젝트’에 포함될 경우, 향후 일본도 ITAR 예외 적용 가능성<sup>7)</sup>

- 양국 정상은 달 표면 탐사 실행협정\* 서명을 환영

\* 일본이 압력식 달 탐사선의 운영을 제공하고 유지할 계획인 반면, 미국은 향후 아르테미스 임무를 위해 일본을 위해 달 표면에 두 명의 우주비행사 비행 기회를 할당할 계획

- 아르테미스 임무를 통해 일본인이 달에 착륙하는 최초의 우주비행사가 되는 공동목표 발표

※ 우주비행사 훈련에 대한 협력 심화 계획과 미국업체와의 잠재적인 협력을 포함하여 극초음속 활공체와 같은 미사일에 대한 저궤도 탐지/추적 위성군에 대한 양자협력 발표

5) 해당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United States - 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April 10, 2024)에 기반함

6) 미 “오커스, 첨단군사 역량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도 고려”(2024.4.10.), 연합뉴스 참조

7) 미국, 오커스 회원국 ITAR 면제 추진...일본도 포함될까?(2024.4.28.), SPACERADAR 참조

## ○ 기술혁신, 경제안보 강화 및 기후행동 가속화

- 양국은 혁신촉진, 산업기반 강화, 회복력 있고 신뢰할 수 있는 공급망 촉진과 미래 전략적 신흥 산업을 구축하기 위해 경제, 기술 및 관련 전략 조정 및 10년간 탄소 배출량 대폭 감소가 목표
  - ※ 미일 경제정책협의위원회를 포함하여 미일 경쟁력 및 탄력성(CoRe) 파트너십에 대한 노력을 바탕으로 핵심·신흥기술 홍보와 보호 등 혁신적인 우위 강화 및 경제안보 강화 계획
- 양국은 AI 및 클라우드 인프라, 인력교육 및 연구소에 대한 Microsoft의 일본투자 29억 달러를 포함하여 상호투자를 통해 강력한 경제 및 상업적 관계 지향
  - ※ Toyota는 최근 노스캐롤라이나에 누적 139억 달러를 투자하여 80억 달러를 추가로 배터리 생산에 투자
  - ※ 실리콘밸리의 '일본 혁신 캠퍼스'와 도쿄에 설립될 '글로벌 스타트업 캠퍼스'와 지속가능한 가치창출(SX) 기업들을 통해 혁신을 육성하기 위한 각자의 창업환경에 대한 투자를 가속화하고 과학기술글로벌혁신(GIST) 이니셔티브에 따라 스타트업 및 벤처 캐피탈 회사에 대한 새로운 일본-미국 인력 교환 프로그램 추진
- 양국은 연구교류, 민간투자, 자본금융 등을 통해 AI, 양자기술, 반도체, 생명공학 등 차세대 핵심·신흥기술 개발/보호에 공동역할 강화
  - ※ (AI) 개정된 프로젝트 합의를 바탕으로 Riken과 Argonne National Laboratory(ANL) 간의 과학용 AI에 대한 협력, NVIDIA, Arm, Amazon, Microsoft 및 일본기업 컨소시엄의 자금지원을 통해 워싱턴 대학과 쓰쿠바대학, 카네기멜론대학과 게이오대학 간의 새로운 AI 연구 파트너십에 1억 1천만 달러 투자
  - ※ (양자) 양자 컴퓨팅에 대한 양자협력의 첫 단계로 일본 국립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와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간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
  - ※ (반도체) 반도체 연구개발, 설계, 인력양성 등의 협력을 위한 공동기술의제를 수립하고 레거시 반도체의 글로벌 공급망 강화(차세대 반도체와 첨단 패키징 분야에서 민간부문 간 강력한 협력 예상)
- 양국은 IPEF와 G7 및 APEC 리더십을 바탕으로 회복력, 지속가능성, 포용성, 경제성장, 공정성,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발전
  - ※ 글로벌 인프라 및 투자 Lobito Corridor 파트너십, 광물안보파트너십(MSP) 및 탄력적이고 포괄적인 공급망 강화를 위한 파트너십(RISE)을 통해 중요한 광물 프로젝트에 대한 협력 지속 노력
  - ※ 자유롭고 공정하며 규칙 기반 경제질서 유지, 비시장 정책 및 관행 해결, 신뢰할 수 있고 탄력적이며 지속 가능한 공급망을 구축 및 미·일 경제적 '2+2', 미·일 상업산업파트너십하에 공개시장과 공정한 경쟁 촉진 노력
  - ※ 데이터 보안을 포함하여 신뢰 바탕으로 데이터 자유로운 흐름 이행과 또한 탄력적이고 책임감 있는 해산물 공급망 촉진 방안 논의키로 함
- 양국은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공동목표를 위해, 미국 IRA과 일본의 녹색전환(GX) 촉진전략을 포함한 조치 이행방안에 대한 새로운 고위급 대화 시작
  - ※ 일본이 미국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의 첫 번째 국제 협력자로 합류하였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안보 이니셔티브(CEESI)를 통한 협력 강화
  - ※ 일본은 학계와의 협력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부유식 해상풍력의 대량생산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 플랫폼인 부유식 해상풍력 기술연구협회(FLOWRA) 출범

- 양국은 핵융합에너지 실증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미·일 전략적 파트너십 발표
  - ※ 미국은 일본과 타동맹국들의 에너지 안보를 지원(예측가능한 LNG 공급 및 탄소중립에너지로의 글로벌 전환 가속화, 다른 화석에너지 수입업체 및 생산업체와 협력하여 화석 에너지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메탄 배출 최소화 능력 포함)
  - ※ 혁신적인 새로운 청정에너지 기술의 광범위한 채택 촉진과 탄소중립에 유망한 에탄올 기반 연료를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항공연료/공급원료 공급 확대 노력
- 양국은 전염병 예방, 대비, 대응 등을 포함하여 글로벌 보건안보와 혁신을 조정하고 보다 탄력적이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촉진
  - ※ 미 식품의약국(FDA)과 일 의약품의료기기청(PMDA)은 암환자의 조기 약물접근 지원과 향후 약물개발 및 의약품 부족을 방지하는 방법 논의를 위해 중앙학 의약품에 대한 협력 및 정보교환 계획 발표(워싱턴 D.C.에 PMDA의 대표 사무소를 설립 예정)

#### ○ 글로벌 외교와 개발을 위한 파트너십

- 인태지역 갈등 예방을 위한 개방적인 의사소통 채널과 실질적 조치 장려, 특히 중국과 의사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동 관심분야에서 가능한 한 중국과 협력 의향
  - ※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불법적인 해양 영유권 주장과 무력·강압 행위에 강력히 반대하며 해양 안보 지원을 위해 ASEAN 국가와 협력 추진
  - ※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거듭 강조하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 장려
- 300억 달러 이상의 신규 세계은행 대출, 국제개발협회 및 아시아 개발기금 등 더 나은 다자 개발은행 및 기금 제공 노력
  - ※ 미국, 일본 및 태평양 섬 국가 간 디지털 통신 인프라 개선을 위한 Google의 투자 발표 환영, 태평양 지역 해저 케이블 제공을 위한 공동 자금 지원 계획(Google은 일본 NEC와 협력하여 미-일-태평양 섬 국가 간 디지털 통신 인프라 확대를 위한 Pacific Connect 이니셔티브에 10억 투자 발표)
- QUAD, 미-일-필리핀 3국, 한-미-일 3국 등 포용적이며 자유롭고 개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유비전을 재확인
  - ※ 동남아시아는 인도-태평양의 중요한 파트너국가로 미-일-필리핀 3국은 국방 및 안보 협력 강화 및 경제안보와 회복력 증진을 위해 노력
  - ※ 한-미-일 3국은 지역 안보 증진, 개발 및 인도적 지원,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 대응, 경제·청정에너지·기술 협력 지속 강화(북한에 비핵화 및 탄도 미사일·대량 살상무기 프로그램 관련 불법 활동 중단 촉구)

#### ○ 인적 유대 강화

- 일본교류교육(JET) 프로그램 등 양국 간 교류 프로그램 활성화, 기후 및 에너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역 간 교류 강화
  - ※ 교육교환 프로그램 “미네타 대사 프로그램(Mineta Ambassadors Program)\*”을 통해 학생 간 이동성 증진
- \* Apple, BlackRock 재단, Toshizo Watanabe 재단 등 지원을 받는 미-일 고등학생/대학생 협의회 프로그램
- ※ STEM 분야 장학금 재개, 일본 풀브라이트 참가자 등록금 상한선 철폐를 통한 최고 수준의 학생 및 연구원 유치 등 추진

### 3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 □ 미국의 안보전략 변화와 동아시아 지역안보에 대한 일본의 위상 강화로 미·중 간 경쟁 심화와 진영 간 갈등 확대 가능성

※ 미·일 정상회담의 핵심은 일본이 미국을 지원하여 글로벌 이슈에 대응하고 중국, 러시아, 북한에 대한 견제에서 협력을 강화하자는 의미로 우리나라는 역내에서 역할 확대와 한반도의 평화 구축에 노력 필요

#### ○ 미국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허브-앤-스포크(Hub and Spoke) 형태의 동맹 전략에서 스포크-대-스포크(Spoke and Spoke) 간 연대강화 전략<sup>8)</sup> 및 집단적인 안보체계 구축으로 변화 추구<sup>9)</sup>

※ 유럽에서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라는 공간을 활용해 통합억제전략을 활용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나토의 결속력이 강화됨

- '23년 8월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인도와 동남아시아 지역의 쿼드(QUAD), 오세아니아·남태평양지역의 오키스(AUKUS)에 이어 동아시아지역의 한·미·일안보협의체\*를 고안하여 동북아에서 안보체계가 다자체계로 전환 계기 마련<sup>10)</sup>

※ 한·미·일안보협의체는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체로 북핵 확장억제 협력-군사훈련 공조-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및 인공지능, 사이버, 경제안보 분야 협의체를 가동하고 공급망 위협에 대한 조기경보 체계 구축<sup>11)</sup>

- 쿼드를 베트남, 뉴질랜드, 우리나라 3개국을 포함한 쿼드 플러스로 확대 의지와 미국, 영국, 호주의 군사동맹인 오키스의 첨단 군사기술 개발에 일본과 한국도 협력 파트너로 고려

※ '24년 5월 1일 한국과 호주가 외교·국방 장관 회의에서 오키스 필러 2 협력 가능성에 대해 논의<sup>12)</sup>

#### ○ 일본의 위상 강화로 미·일 양국을 중심으로 미·일·필리핀 협력과 한·미·일 협력 등 소다자 협력체를 활용하여 중국을 견제

- '24년 4월 12일 미·일·필리핀 3국 첫 정상회담을 통해 중국 견제를 위해 공조하기로 합의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남중국해 어디서든 미-필리핀 상위방위조약을 적용할 것을 천명하였고, 각 양자동맹에서 일본을 중심축으로 3자 정상회의 구조로 중국을 견제<sup>13)</sup>

- '24년 7월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에서 한·미 양국군과 일본 자위대 방위 태세 강화와 정보공유 원활화, 사이버보안 협력 확대 등이 의제가 되고 러시아에 대한 대응 의견도 교환될 전망<sup>14)</sup>

※ 미국은 반도체 등 중요물자의 공급망 구축 등 경제안보 협력을 한·일 양국 정부에 요청 전망

※ '23년 8월 한·미·일 정상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외교·경제·기술·자원·에너지 등 다방면에 걸쳐 포괄적인 안보협력을 제도화하기로 합의

8) 영국 「JDW」의 바이든 동맹전략 변화 평가, 한국군사문제연구원, 2022 참조

9)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와 미국의 '대중 통합 억제' 전략(2023.8.2.) 연합뉴스 참조

10)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의체(KOJAUS)의 출범,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023 참조

11) 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2023.8.18.), 동아일보 참조

12) 한국·호주, 오키스 협력 논의...대중국 견제 기술 공유 '필러2' 참여할 듯(2024.5.1.), 경향신문 참조

13) 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 "모든 남중국해 상호방위조약 적용"(2024.4.12.), 한겨레 참조

14) "바이든,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조율"(2024.3.31.), 한겨레 참조

□ 군사안보에서 하드 파워 측면의 일본 위상 강화에 대응하여 과학기술이 중요한 경제안보에서 소프트 파워 측면의 우리나라 위상 강화 필요

※ 동아시아에서 미국의 군사안보 파트너로서의 일본 위상에 대응하는 경제안보 파트너로서의 우리나라 위상 확보를 위해 (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필요

○ 일본의 위상 강화 등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국가안보 이슈는 한·미·일 협력을 우선하고 한·일 양국의 공동 이슈는 양자 간 협력을 통해 선도적으로 대응

※ 우리나라 여론은 안보협력의 형태는 한·일 양자협력보다는 미국을 포함하는 한·미·일 협력 선호(EAI, 2023)

- 북한 대응 등 군사안보 이슈와 중국 견제를 위한 공급망을 포함한 경제안보 이슈 등에 미국 주도의 한·미·일 협력에서 우리나라 협상력 제고

※ 군사안보 이슈에 대해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우선적인 목표로 접근하고 경제안보 이슈는 국제규범에 기초한 원칙 견지와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미국 중심의 공급망 재편에 주도적 참여 및 역할 확대

※ 최근 북·일 관계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고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탈피 시도에 대해 한·미·일 공동 대응 필요<sup>15)</sup>

- 인구감소와 경제활력 저하 등 공통된 어려움 속에 각국의 강점을 토대로 미-중 기술패권 경쟁 대응, 고령화, 그린 전환, 디지털 전환 등 한·일 양국의 공동 이슈 대응에 우리나라 주도

※ 첨단 제조기술을 보유한 한국 기업과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이 강한 일본 기업 간 협력 확대 등을 통한 중국 리스크 분산과 한·일 간 공급망 안정화 추진<sup>16)</sup>

○ 일본의 역할 확대로 미·중 간 갈등 심화와 지역의 불확실성 증가 가능성에 대비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우리나라 소프트 파워(과학기술외교 역량) 강화

- 선진국 위주의 협력 방향에서 글로벌 사우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등을 통한 우리나라 글로벌 위상 제고

※ 한국에 대한 지역 인식은 아시아에서 미국 동맹 시스템의 약한 고리로 인식: 호주 Best Friend 인식 조사('22)에서 한국(4-5%)은 중국(6%)보다 낮으며, 아세안에서 한국은 지역 리더십에 대한 신뢰에서 0.8%로 10개국 중 9위<sup>17)</sup>

- 여전히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규칙 기반 질서에 기초하고 유사 입장국과의 공동전선에 기반한 중국 의존도 축소 및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 병행

※ 수출시장, 핵심광물 등 중국에 집중된 의존도를 분산하기 위해 대체 시장을 확보하고 핵심광물 수입경로를 다각화 필요('23년 기준, 희토류 5종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는 61.2%로 꾸준히 증가<sup>18)</sup>)

※ 비안보 기술분야와 민간 중심 협력 및 국제기구 등 다자 간 협력체를 활용하여 중국과 협력

- 장기적으로 동아시아 지역 협력 및 아세안과의 공동 협력에서 중·일 간 관계 증개 및 미·중 간 관계 개선을 위한 플랫폼으로 한·중·일 협력들을 활용<sup>19)</sup>

※ 2019년 12월 이후 중단되었던 3국 정상회의/한·중·일 과학기술장관회의 재개 및 3국 간 공동문제인 미세먼지와 환경오염, 전염병 등 협력 방안 모색 필요(한·중·일 외교장관회의에서 3국 정상회의 개최 논의, '23.11)

15) 북, '두 국가론', 북일관계 재정립 명분되나?(2024.3.2.), SPN 서울평양뉴스 참조

16)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과 정책과제, 중소벤처기업연구원, 2024 참조

17)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Indo-Pacific Era, Brookings, 2022 참조

18) 핵심광물 탈중국 애써도 모자랄 판에...희토류 수입 3년새 3배 폭증(2024.5.1.), 매일경제 참조

19) 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세종연구소, 2023 참조

## 참고문헌

---

- 국가안보전략연구원,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와 후속과제: 포괄적 안보 위협과 한미일안보협약체(KOJAUS)의 출범, 2023
- 국회입법조사처, 안보·경제로 강화되는 미일관계 - 미일 정상회담(5.23)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2
- 국회입법조사처, 2023년 미일 관계 주요 현안과 시사점, 2023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미·일 정상회담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2024
- 세종연구소, 미중경쟁 시대 한중일 협력의 의미, 2023
- 중소벤처기업연구원,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한일 협력과 정책과제, 2024
-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영국 「JDW」의 바이든 동맹전략 변화 평가, 2022
- EAI, 여론 조사로 읽는 한일 안보관계: 한일관계에서 안보는 중요할까?, 2023
- Brookings, The Biden-Kishida summit: An elevated partnership faces potential disruption, 2024
- South Korean Foreign Policy in the Indo-Pacific Era, Brookings, 2022
- The White House, United States - Japan Joint Leaders' Statement, 2024
- 경향신문, 한국·호주, 오커스 협력 논의...대중국 견제 기술 공유 '필러2' 참여할 듯(2024.5.1.), 검색일: 2024.5.2.
- 동아일보, 한미일 '동북아판 쿼드' 안보협력체 만든다(2023.8.18.), 검색일: 2024.4.25.
- 매일경제, 핵심광물 탈중국 애써도 모자랄 판에...희토류 수입 3년새 3배 폭증(2024.5.1.), 검색일: 2024.5.2.
- 연합뉴스, 미 "오커스, 첨단군사 역량 공동개발 파트너로 한국도 고려"(2024.4.10.), 검색일: 2024.4.25.
- 연합뉴스, 한미일 안보협력 심화와 미국의 '대중 통합 억제' 전략(2023.8.2.), 검색일: 2024.4.25.
- 한겨레, 미·일·필리핀 첫 정상회의... "모든 남중국해 상호방위조약 적용"(2024.4.12.), 검색일: 2024.4.25.
- 한겨레, "바이든, 7월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한미일 정상회담 조율"(2024.3.31.), 검색일: 2024.4.25.
- SPACERADAR, 미국, 오커스 회원국 ITAR 면제 추진...일본도 포함될까?(2024.4.28.), 검색일: 2024.4.30.
- SPN 서울평양뉴스, 북, '두 국가론', 북일관계 재정립 명분되나?(2024.3.2.), 검색일: 2024.4.25.



## [ KISTEP 브리프 발간 현황 ]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112 (24.01.08.)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진영현·오세미 (KISTEP)	기술주권
113 (24.01.12.)	2022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투자 현황	이새롬·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114 (24.01.12.)	2022년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연구개발인력 현황	이새롬·한웅용 (KISTEP)	통계분석
- (24.01.22.)	KISTEP Think 2024, 10대 과학기술혁신정책 아젠다	강현규·이민정 (KISTEP)	이슈페이퍼 (제357호)
- (24.01.25.)	국가연구개발 성과분석 프레임워크 개발 및 적용	박재민·문해주·김수민·박서현 (건국대학교) 이호규(고려대학교) 강승규(한국조달연구원)	이슈페이퍼 (제358호)
115 (24.01.25.)	세계경제포럼(WEF) Global Risks 2024 주요 내용 및 시사점	이미화 (KISTEP)	혁신정책
116 (24.01.25.)	기후변화와 기후 지구공학	정의진·임현 (KISTEP)	미래예측
117 (24.01.26.)	단백질 구조예측 및 디자인	전수진·한민규 (KISTEP)	기술동향
- (24.01.29.)	신약개발 분야 정부 R&D 현황과 효율성 제고 방안	송창현·엄익천(KISTEP) 김순남(국가신약개발사업단) 이원희(유한양행)	이슈페이퍼 (제359호)
- (24.01.31.)	반도체 분야 정부연구개발투자의 효과성 분석과 개선방안	김준희·엄익천(KISTEP) 오승환(경상국립대학교) 전주경(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슈페이퍼 (제360호)
118 (24.02.01.)	인공지능이 변화시킬 미래 연구수행 모습	이상남 (KISTEP)	미래예측
119 (24.02.13.)	EU 인공지능(AI) 규제 현황과 시사점	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
- (24.02.15.)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의 10대 미래유망기술	박창현 (KISTEP)	이슈페이퍼 (제361호)

발간호 (발행일)	제목	저자 및 소속	비고
- (24.02.29.)	과학기술 전공자 취업 현황 분석 및 시사점	이정재·박수빈·이원홍 (KISTEP)	이슈페이퍼 (제362호)
120 (24.03.07.)	국가R&D 국외수혜정보 보고 제도 주요 내용 및 시사점	황인영·정정규 (KISTEP)	혁신정책
121 (24.03.19.)	2022년 한국의 과학기술논문 발표 및 피인용 현황	김용희 (KISTEP)	통계분석
122 (24.03.20.)	브렉시트(Brexit) 이후 영국의 과학기술 동향	임현지·이가원·홍미영 (KISTEP)	기술동향
123 (24.03.27.)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격년 보고서(2022년 NSTC ISTC)’의 이행사항 점검 결과와 시사점	도계훈·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
124 (24.04.01.)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의 연구데이터 정책과 시사점	이민정·송창현 (KISTEP)	혁신정책
125 (24.04.01.)	안전·신뢰 AI	구본진 (KISTEP)	기술주권
- (24.04.04.)	토픽모델링-회귀분석 기반의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및 예측	오건웅·홍미영 (KISTEP)	이슈페이퍼 (제363호)
126 (24.04.08.)	2022년도 세계 R&D 투자 상위 기업 현황	김용희 (KISTEP)	통계분석
127 (24.04.15.)	2022년 신약개발 정부 R&D 투자 포트폴리오 분석	김종란 (KISTEP)	통계분석
- (24.04.24.)	바이오 클러스터 운영체계 개선을 위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주원·김종란 (KISTEP)	이슈페이퍼 (제364호)
128 (24.04.25.)	비만치료제(Anti-Obesity Drugs)	김주원·이민정 (KISTEP)	기술동향
129 (24.05.07.)	새로운 경제 시대를 위한 성장의 질적 측정 - The Future of Growth Report 2024-	김용희·변영호 (KISTEP)	통계분석
130 (24.05.14.)	2024년 미·일 정상회담의 의미와 시사점	강진원·김혜나 (KISTEP)	혁신정책